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반도체주 부진에 호르무즈 긴장까지..미국증시 하락

- 미국증시 하락: 다우 -0.25%, 나스닥 -1.16%
- 삼성전자 여파..반도체주 전반 하락
- 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고조, 국제유가 반등

### Summary

#### 미국증시 하락: 나스닥 1%대 약세

미국증시는 7월 7일(현지시각) 일제히 하락 마감. 거시 경제 관련 특별한 지표나 이벤트가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전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글로벌 반도체주의 순환적 약세가 진행돼 지수 약세를 견인.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25% 하락한 52,925.15에 마감해 전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던 53,000선 아래로 내려왔고 S&P500 지수는 0.45% 하락한 7,503.85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1.16% 하락한 25,818.69에 마감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1.77% 하락한 29,173.02에 거래를 마칩.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9% 하락 마감. 전일 15포인트 중반대로 내려섰던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3.60% 반등해 16.13을 기록.

(다우지수 -0.25%/ 나스닥 -1.16%/ S&P500 -0.45%/ 러셀2000 -0.90%)

#### 호르무즈발 긴장 재고조: 미국 공습 재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24시간동안 3건이나 연이어 발생. 카타르 정부는 자국의 LNG 선박 한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란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 웨디안호가 오만 연안에서 파손됐다고 보도. 이어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중이던 유조선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항공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힘. 그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 중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이용해야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지정 항로만 이용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던 바 있음. 이란은 실제 이번 유조선 공격과 관련해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일부 상선들이 이란과 협의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면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거나 조작해 감시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의 탐지를 피하려 했다”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촉진하려는 이란의 노력에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 사실상 유조선에 대한 잇따른 공격의 주체가 자국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읽힘.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잇따른 유조선 공격을 문제 삼아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했던 일반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힘. 이 허가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재개와 교전 중단에 합의한 뒤 발급돼 8월 21일까지 60일간 유효

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16일만에 조기 철회. 미국은 “현재 이란과 체결된 양해각서는 전적으로 합의 이행 여부에 기반한 합의이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원유 판매 허용 조치 철회에 대해 설명. 다만 평화 협상의 결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실제 블룸버그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 협상단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선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다만 지난달 체결된 양해각서는 상선 공격 중단과 미국의 이란산 원유 판매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의 제재 철회 조치는 양해각서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합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 실제 장 마감 이후 한국 시각 오전 6시 15분을 전후로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강력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힘. 이란 역시 미국의 이란산 원유 판매 제재 중단 철회 조치는 이슬라마바드 합의 각서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규탄. 다시 강대강으로 치닫는 분위기 속에 원유 선물은 브렌트유 기준 5% 이상 상승 중.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동안 변수로서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중동지역 지정학적 이슈가 유가 변동성을 매개로 재차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삼성전자발 반도체주 하락

전일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2분기 역대급 잠정 실적을 발표.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171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9.31%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1,810.26%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영업이익 잠정치에는 성과급 총당금 약 20조원이 반영됐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사실상의 영업이익은 100조원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수치. 다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9% 이상 급락함. 이미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넘어 설만큼 강력한 실적은 아니었다는 ‘눈높이’ 문제에 더해 마침 불거진 메모리 고점론에 대한 경계감도 투자 심리를 냉각시킴.

모건스탠리는 최근 반도체주 급락은 시장 주도주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놓으며 반도체주 고점 가능성을 언급. 모건스탠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 중심의 집중 투자에서 벗어나 시장 전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것을 권고. 특히 반도체 및 메모리 종목 비중을 축소하고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자금을 재배치할 것을 권함. 베어드 역시 메모리와 스토리지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큰 폭 상승해 소비자와 기업들의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가격 상승이 수요를 둔화시키는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고점론에 힘을 실음.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투자자본수익률(ROI)이 낮아져 메모리 가격 인상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 힘들어지면 메모리 업황은 일시적으로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DRAM 출하량과 가격이 예상을 하회했으며 이는 가격 상승률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 조정의 또 하나의 빌미가 됐으나 내년에도 판매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참고: 과격한 주가 반응에 뇌동하지 말자, 김영건, 7/7)는 당사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감안, 고점론에 기반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기초,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 등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바람직해 보임.

###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뉴욕 연은이 발표한 6월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1년,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동반 상승.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7%로 전달 3.5%에 비해 0.2%p 상승, 2023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3%로 전달 대비 0.2%p 상승, 2022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 다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달과 동일한 3.0% 선에 머물렀음. 이는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 세부항목으로는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식료품 가격 상승 전망도 다소 완화. 다만 의료비와 임대료 가격 상승 전망이 높아졌음. 한편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향후 실직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낮아졌지만 자발적 퇴사 가능성도 2023년 7월 이후 최저로 떨어져 해고도 채용도 정체된 최근의 노동 시장 분위기를 반영함.

### 특징종목

#### 삼성전자가 촉발한 반도체주 약세

전일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에도 예상을 일부 하회한 제품 가격 상승률, 높아질만큼 높아진 기대치를 크게 넘어서지 못한데 대한 실망, 일각에서 제기된 메모리 고점론 등을 반영해 급락했고 아시아 증시 관련주 전반이 약세를 보인데 이어 지난밤 유럽과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약세가 이어짐. 네덜란드 노광 장비 업체 ASML이 7% 이상 급락했고, 프랑스 반도체 소재 기업 소이테크가 17%, 오스트리아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AT&S도 10%대 하락. 프랑스/이탈리아 합작 반도체 기업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8.1% 하락.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65% 하락했으며 메모리 고점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71%)를 비롯해 샌디스크(-7.26%), 웨스턴디지털(-7.86%) 등 스토리지 기업들도 큰 폭 하락.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체 AI 칩 개발 설계를 진행 중이라는 로이터 보도에도 이미 중국 내 첨단 AI 칩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엔비디아(+0.71%)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AMD(-6.51%)는 하락폭을 키움. 이외 인텔(-9.66%)은 마이크로소프트(+0.54%)와 자사가 함께 투자한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신티언트가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는 소식에도 10% 가까이 하락. 어플라이트 머티어리얼즈(-6.46%), 램 리서치(-6.87%), KLA(-7.22%) 테라다인(-9.59%) 등의 장비주도 대체로 크게 하락. SMH(-3.78%), SOXQ(-4.68%), DRAM(-6.44%), DISK(-8.32%) 등의 반도체 대표 ETF들도 전 거래일의 반등을 뒤로 하고 하락 마감.

다만 이날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모집 물량 대비 수 배 이상의 청약이 이루어졌다고 전하는 등 AI 투자 모멘텀에 힘입은 메모리 강세에 대한 시장 내 관심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순환매: 소프트웨어, 에너지, 산업재, 헬스케어 강세

반도체를 중심으로 쏠렸던 자금이 반도체주 조정과 맞물려 여타 섹터군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이어짐. 특히 AI 서사의 가장 큰 피해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종목군의 반등이 두드러

졌고 이외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도 특징적.

소프트웨어에서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담 등을 최근 꾸준한 약세 요인으로 반영해 온 오라클(-1.50%)이 전일 10거래일만의 반등을 하루만에 뒤집으며 다시 약세 전환했지만 이외 세일스포스(+2.34%), 서비스나우(+2.59%), 인튜이트(+3.32%), 어도비(+1.59%) 등의 주요 종목군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IBM(+2.12%)과 액센추어(+3.78%) 등 IT 서비스 기업들도 동반 강세.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에너지주로의 순환매기 유입을 견인. 엑스 모빌(+3.85%), 셰브론(+3.52%), 코노코 필립스(+4.69%), EOG 리소시스(+3.98%), 다이아몬드백 에너지(+3.93%), 옥시덴탈 페트로리엄(+5.88%) 등이 동반 상승.

헬스케어주도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상승. JP모건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세를 근거로 일라이 릴리(+2.96%)의 목표주가를 기존 1,3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머크(+1.64%)와 함께 HIV 치료 주 1회 복용 경구약에 대한 임상 최종 단계를 진행 중인 길리어드 사이언스(+5.21%) 등도 강세. 유나이티드헬스(+2.44%), CVS(+2.20%), 엘레반스 헬스(+2.62%), 시그나(+1.65%) 등의 민간 의료보험주도 상승세.

다만 섹터 내에서는 버택스 파마슈티컬스(-1.39%)가 크리네틱스 파마슈티컬스(+98.74%)를 희귀 호르몬 질환 치료제 확보를 목적으로 100억 달러 규모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하락.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빅테크 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0.54%)와 메타 플랫폼스(+2.55%)가 각각 자사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함. 마이크로소프트(+0.54%)는 일부 엑셀 모델과 아웃룩 서비스에서 오픈 AI와 엔트로픽 모델 대신 자체 AI 모델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고, 메타 플랫폼스(+2.55%)도 자체 AI 이미지 생성 모델 MUSE(뮤즈)를 공개하고 외부 이미지 생성 모델을 단계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힘. 뮤즈 영상 생성 기능도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순차 출시할 예정.

한편 4개월만에 또 다시 대규모 회사채 발행 계획을 밝힌 아마존닷컴(+0.74%)도 시장 대비 강세.

다만 테슬라는 스페이스X(-6.83%)와의 합병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에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을 소화하며 하락 마감.

**이외 특징주**

스페이스X(-6.83%)가 이날부터 나스닥100 지수에 편입된 가운데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각각 300달러와 205달러 목표가를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 씨티는 장기 목표가를 주당 900달러까지 제시. 다만 그럼에도 주가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유지하며 낙폭 확대. 이외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8.36%), AST 스페이스모바일(-7.97%), 로켓 랩(-10.40%) 등 우주 관련 테마주 전반이 약세.

전일 미국 내에서의 태양광 발전 비중이 석탄 발전 비중을 추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날은 도이치뱅크가 퍼스트솔라(-2.29%)의 투자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포함해 현재의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의견인데 그럼에도 주가는 약세권에 머무름. 솔라엠티 테크놀로지스(-6.98%), 선련(-5.94%) 등의 여타 태양광 관련주도 전일 반등을 뒤로 하고 약세 전환.

리비안(-18.12%)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분기 매출과 차량 인도 대수 전망에도 7,500만주 규모의 보통주 신주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힌 가운데 급락.

GE베르노바(-6.51%)를 비롯 캐터필러(-3.07%), 커민스(-2.67%) 등 발전 설비주 전반 약세. 바클레이스가 앞서 경쟁사인 독일 지멘스 에너지(-4.26%, 독일)의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도로 하향한 영향인데, 바클레이스는 지멘스 에너지의 시총에 사이클 최고점이 무기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투자의견 하향의 근거를 밝힘.

##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 호르무즈 긴장 고조..국제유가 반등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며 반등. 지난 24시간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민간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세 차례 이뤄졌으며 이에 연합 해군이 운영하는 합동 해양 정보 센터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위협 수준을 기존 '상당'에서 '심각' 수준으로 격상.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중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로 미국 재무부는 이 공격을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짓고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철회. 이후 이란은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로 해협을 이동하는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 이번 공격이 자국 소행임을 사실상 인정함.

이같이 상황이 급변하며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76% 상승한 배럴당 70.44달러에 마감, 배럴당 70달러선을 재차 상회. 브렌트유 9월물도 5% 이상 상승.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유가 상승은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3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금 가격에도 조정의 빌미로 작용.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0.2% 소폭 하락했으며 은 선물 가격도 1% 이상 하락.

### 결약재..채권가격 약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반등했고 아마존이 또 다시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등 공급 증가 이슈까지 더해져 미 국채 가격은 하락(금리 상승). 뉴욕 연은이 발표한 지난 6월 소비자기대 설문 조사에서 단기와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모두 상승한 것도 금리 상승에 영향.

통화정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2년물 금리는 7.5bp 상승한 4.1848%를 기록했고 벤치마

크인 10년물 금리는 8.2bp 상승한 4.5511%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7.1bp 상승한 5.0557%로 5%를 상회.

이날 재무부는 580억 달러 규모의 3년물 국채를 발행. 수요가 양호했으며 수익률은 지난 입찰에 비해 낮게 결정됨. 이번주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입찰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

한편 이날 아마존은 3년에서 40년까지 총 8개 트랜치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투자 수요가 620억 달러 가량 몰렸음. 이는 적지 않은 규모이나 지난 3월 아마존의 회사채 발행 당시 발행 금액의 세 배가 넘는 수요가 몰렸던 것에 비해서는 수요가 다소 약화됨. AI 투자 붐으로 인한 기업들의 잇따른 회사채 발행은 채권 공급 확대를 유발, 국채 금리 상승(국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번달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약 27% 내외로 전망 대비 소폭 높여 반영. 9월 인상 가능성도 62% 가량으로 상승.

#### 달러 사흘만에 반등

미국 달러 가치는 사흘만에 반등.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다시 고조되며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달러 가치도 상승.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23% 상승한 101.087을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1,528.20원에 마감했으며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15원)를 고려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13.45원 하락한 1,513.60원을 기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